

## S&P, 베네수엘라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

### □ S&P와 Moody's, 베네수엘라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 지난 9월 25일(현지시각), S&P는 베네수엘라의 장기 외화 차입 등급을 종전의 B에서 B-로 한단계 하향 조정하고, 등급전망도 부정적(negative)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앞서, Moody's(지난 9월 20일)도 베네수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의 B2에서 B3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들어 3대 신용평가기관들 모두가 베네수엘라 국가 신용등급을 모두 하향 조정하였음.
- S&P는 금번 하향 조정의 사유로 국내 정치 사회 불안 양상 심화, 정부의 개혁성과 미비, 석유 수입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상반기 경제 침체 등을 지적하며, 향후 재정 적자와 정국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신용도 하락 가능성도 시사함.

S&P		Moody's		Fitch IBCA	
날짜	등급	날짜	등급	날짜	등급
2002년 9월	B→B-	2002년 9월	B2→B3	2002년 6월	B+→B
1999년 12월	B+→B	1998년 9월	B1→B2	2002년 2월	BB-→B+

## □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 침체 지속

- 4월 쿠데타 이후 차베스 추종자들과 재계, 노동계, 종교계로 구성된 반 차베스 세력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에는 차베스 추종세력들이 대법원의 쿠데타 주역 처벌 요구 기각 판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고,
- 지난 9월 25일에는 차베스의 탄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련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 차베스 세력들은 법원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 10월에 예정된 전국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차베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 이러한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상반기 베네수엘라 경제는 차베스 대통령의 신 경제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수 불황에 따른 기업의 도산 급증, 실업률 증가, 비석유 부문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7.1%로 크게 하락하였고,
- 볼리바르(BS)화의 대미 달러 환율도 지난 9월 30일 현재, 1달러당 1460으로 지난 2월 자유변동환율제 변경 이후 98%이상 급등하는 등 경제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 향후 전망

-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1%가 향후 추가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쿠데타 발발시 25%가 내전에 참여하여 13%는 반대세력을, 12%는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차베스 지지세력과 반 차베스 세력간의 양극화 현상은 총파업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비록 지난 9월 25일, 대법원이 고위층 비리 및 차베스 대통령의 석유비축자금 유용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 법원이 쿠바에 대한 불법적인 석유 판매, 인권 유린 등 10여 건의 차베스 대통령 탄핵 소송을 계속 검토 중이어서, 차베스 대통령의 탄핵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전문직행원 최성규 (☎3779-6665)  
E-mail : ppio93@koreaexim.go.kr